별첨 : 양국 장관 면담 결과(7.1(금))

▶한-사우디 산업협력위원회 구성, 年 2회 개최
▶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자동차, 조선, 전자 협력 강화
▶한국 산업화 전략과 경험 공유를 위한 산업자문단 구성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7.1(금), 방한한 **사우디아라비아 칼리드 알-팔리(Khalid Al-Falih)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**을 면담하고,

○ 자동차, 조선, 전자산업 부문에서 공동투자,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간 경제관계를 확대·심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,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**「한-사우디 산업협력위원회**(가칭)**」를 年 2회 개최하기로 합의**함

□ 양국 장관은 **한-사우디 협력 관계를 상호보완적 관계**로 인식하고, 협력 관계가 그동안의 석유무역, 투자성공 사례를 토대로 **자동차·조선·전자 등의 분야로 진전·심화될 필요가 있다**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

○ 사우디측은 **사우디 아람코의 S-Oil 투자 성공**은 한국의 우호적 기업환경*과 창의성과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인력, 축적된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**진정한 Win-Win 사례**이며,

* S-Oil의 정유설비 고도화 투자(5조원)를 위해 석유공사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비축시설을 지하화하고, 상부부지를 S-Oil에 매각하여 투자부지 문제를 해결

○ S-Oil 투자경험이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조선협력, 사우디 공공투자펀드(PIF)를 활용한 포스코건설 투자, SABIC(사우디 국영석유화학회사)과 SK종합화학의 석유화학협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

□ 알-팔리 장관은 면담에서, **사우디의 「비전 2030」은** 석유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**사우디의 산업구조를 다각화**하려는 것으로,

○ 신재생에너지와 광산업(mining)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, 자동차, 조선, 화학, 전자, IT 등으로 **산업구조를 고도화**하고, 전력, 항만, 도로 등 **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**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

○ 특히, **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고려**하고 있다고 언급하고, **한국기업의 참여를 환영하며 한국기업에게 보다 많은 투자기회와 협력이 이루어지**기를 희망한다고 언급

○ 또한, 사우디가 추진중인 공기업 민영화로 확보될 대규모 자금의 대한국 투자 및 한국과의 제3국 공동투자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희망

□ 주 장관은 자동차, 조선 등 분야에서 **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**으로 **양국간 협력과 투자가 확대되기를 희망**한다고 밝히고,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한국 정부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, 기술혁신 등 **산업지원정책 노하우를 사우디와 공유**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**산업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**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화답

○ 또한, 양국 장관은 보다 실질적 파트너쉽 강화와 상호보완적 투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**장관급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연간 2회 개최하는 등 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데에 합의**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사우디 조직개편 이후 에너지(석유, 가스, 전력), 산업정책, 과학기술, 광물자원 등을 총괄하도록 기능이 대폭 확대된 **에너지산업광물부와 협력채널을 구축한 데에 의의**가 있으며,

○ 중동의 종주국인 사우디와의 협력 확대로, 향후 걸프연합국가(GCC)와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7-04 10:04:40